



다솜 사랑

Volume 4, Number 1

2007년 9월 29일

다솜 사랑

Vol. 4, No. 1 (제15호)

발행: 다솜한국학교

편집인: 최미영

다솜 달력

- 9월 29일 특활 수업
- 10월 13일 교사 회의
- 10월 13일 북가주 교사 연수회
- 10월 20일 아침 조회
- 10월 27일 특활 수업
- 10월 27일 구연동화대회
- 11월 10일 박물관 견학

학교장 인사말씀

존경하는 학부모님, 그리고 다솜한국학교에 새로 입학한 학생들을 비롯하여 2004년 개교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학 중인 학생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학교에 자녀를 보내주시고 학교의 일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모든 학부모님들 및 지역사회 어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다솜한국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질적 그리고 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여름 방학동안 미국을 떠나 여행을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캄보디아와 한국에서 학생 영어 캠프에 디렉터 자격으로 다녀왔고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재외동포 교육진흥재단 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캄보디아는 동남아에 있는 나라로서 한국 교포들이 1000여명 가량 살고 있으며 한국학교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한류 열풍이 불고 한국어를 배워 좋은 일자리를 찾기위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있었던 학술대회에는 전 세계의 36개국에서 한국어 교육에 헌신하시는 300명의 선생님들이 참가하여 각 국에서의 한국어 및 문화 교육 상황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세계에는 약 195개 국가가 있으며 그 중 약 170개 국가에 700만의 한국인 교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36개국에서 오신 선생님들에 따르면 이제는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인 면에서 다른 나라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솜한국학교 재학생들도 앞으로 어른이 되면 세계의 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그곳의 사람들과 또 그곳의 우리 동포들과 함께 서로 협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에 서로

잘 알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솜한국학교에 다니는 여러 학생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잘 배워서 세계 어디에 가서든 지 능력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규학교에서는 영어를, 한국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잘 배우고 익히며 또한 친구들과 이웃에게 정직하고, 친절하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어디에서도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세계화 (globalization)라는 말이 많이 듣게 됩니다. 세계화의 바른 뜻은 자신이 속한 문화를 잘 배우고 익혀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웃과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현재 두 가지 언어와 문화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인 미국의 영어 및 미국 문화와 부모님의 나라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입니다.

토요일마다 한국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때에 뚜렷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한층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솜한국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바라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보람있게 살기 위해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올 1년도 즐겁게 배우도록 하세요. 건강하고 즐거운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사 및 반 소개



반 이름	교사 성명	학생 수 및 특활반
고조선 반	황현경 선생님	12명 / 소고반
신라반	송향화 선생님	13명 / 종이접기반
고구려반	김영식 선생님	11명 / 종이접기반
백제반	원은경 선생님	13명 / 한국무용반, 미술반 I
발해반	백지현 선생님	14명 / 한국 무용반, 미술반 I
고려반	김정연 선생님	14명 / 미술반 II
조선반	정은경 선생님	10명 / 컴퓨터반
대한민국반	임강주 선생님	15명 / SATII Korean반
성인반	서기운 선생님	6명
소고반/무용반	박주희 선생님	
미술반 I,II	채현정 선생님	
종이접기반	송향화 선생님	
컴퓨터반	서기운 선생님, 이민형 선생님	
SATII Korean반	임강주 선생님	

다솜 한국학교 학생 현황 (총 108명)

점심 봉사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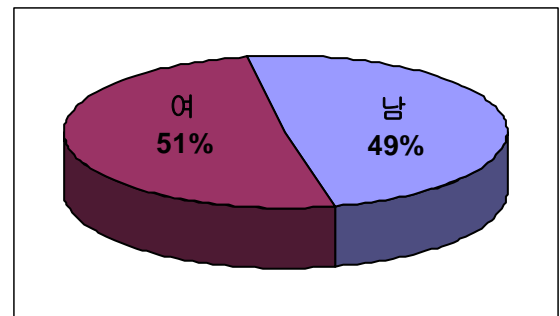
• 9월 15일

박지연, 이줄리아, 장준원, 장예원 학생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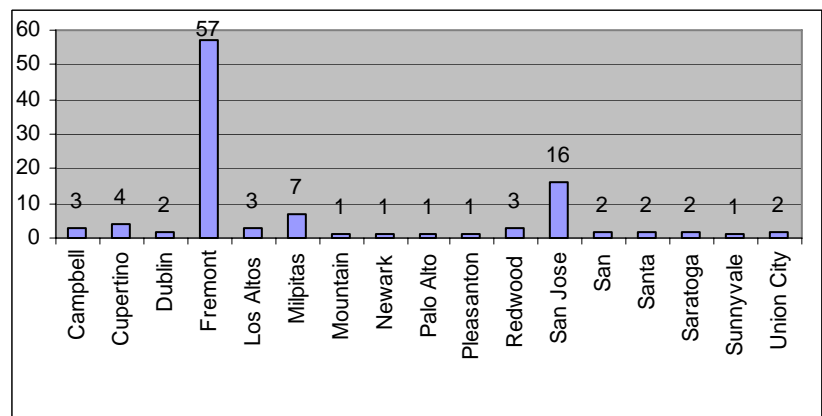
• 10월 13일 교사 회의

유정윤, 유정화, 조민기, 유혜리 학생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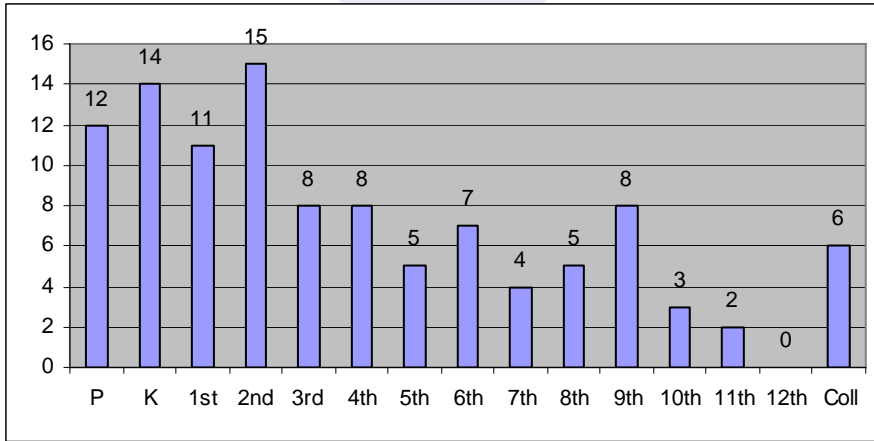
남녀 학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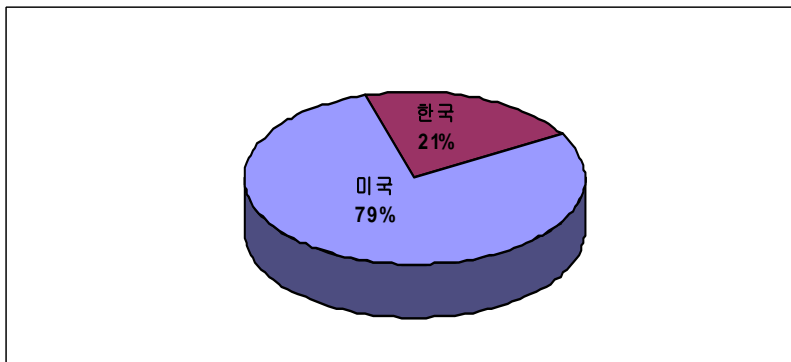
지역별 학생



다솜 한국학교 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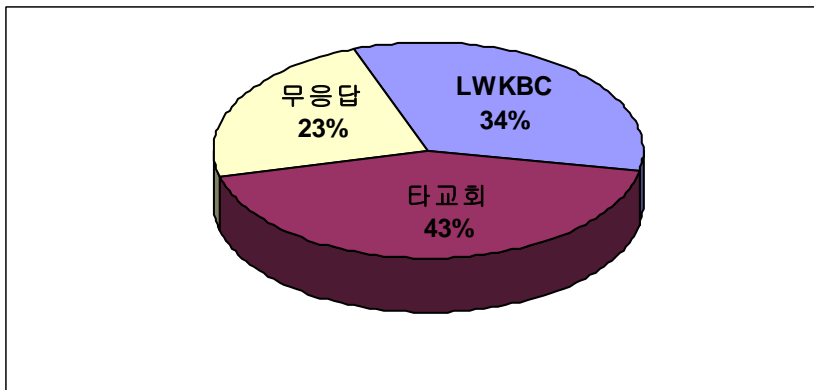
학년별 학생



출생지별 학생

분포

한국 21%



교회별 학생 분포

리빙워드 34%

타교회 43%

무응답 23%





다솜 한국학교 각 반 학부모 대표 명단

다솜한국학교
1494 California Circle
Milpitas, CA 95035

Phone: 408-934-3600

Fax: 408-934-1092

E-mail:

mydasom@dasomks.org

반 이름	학부모 성명	학생 성명
고조선반	김원섭 어머니, 김은주	김원섭, Thia 공주
신라반	박상준 어머니, 조윤정	박상준, 조현성
고구려반	김석영	김유나
백제반	서명숙, 장미연	서사무엘, 장시온
발해반	장미경, 김재경	유정윤, 조민기
고려반	이영희, 장기일	박지연, 장예원
조선반	서혜진	김상준
대한민국반	정덕례	정샤론

공지 사항

생일 축하합니다.

9월 생일 학생: 김현지,

김형석, 방수환, 원수빈,

이예지, 홍희연

10월 생일 학생: 김규민,

김수영, 박지혜, 이형진,

임수영, 조현희, 최동호,

홍소연

- 지난 9월 8일 개강식 때에 소개되었던 고구려반과 대한민국반의 담임 선생님이 서로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구려반은 김영식 선생님, 대한민국반은 임강주 선생님이 맡으셨습니다.
- 이번 학기부터 청년반이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청년반 담임 선생님은 역시 청년 선생님이시니 한국에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역임하시다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로 대학원 과정을 마치신 서기운 선생님입니다.
- 오는 11월 10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아시안 아트 박물관 참관 수업을 하게됩니다. 이 수업은 11시부터 1시간 동안 **Docent** 가 영어로 인솔하는 가이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참관 수업은 대한민국반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 장소로 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반에서도 참관 수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학교에 알려주시면 자리가 생기는 경우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참관 수업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북가주아름다운재단이 후원하여 견학 경비를 지원하는 행사로 현재 15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학한 학생들은 행사 후에 답사기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학부모님들께서는 하교 시간에 각 교실 앞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학교 입구 현관에 위치한 **reception area**에서 기다려주십시오.